

# 3세대 同居住宅에 대한 부모·손자녀世대의 住意識

## A Study on the Housing Consciousness of the Parent & Children generation for the 3-Generations Sharing

이 동 숙\*      윤 충 열\*\*  
Lee, Dong-Suk      Yoon, Choong-Yeul

### Abstract

Comparing with an upper generation who have experienced a living with a extended family in a sudden aged tendency, the Parent & Children generation who haven't had a experience in it. So they have much different life styles each generation. It may cause many problems that many generation are living in a common residential space. further more every generation gets their own characteristic of the life style.

In addition, the middle & lower generation's understanding can be explained on their position about an Grand-parent generation's using. In this study, I am going to find out the problems in these situation in comparison with each generation's understanding dwelling environment among them, and then analyze what affection of 3-generation sharing preference standard is given by the differences each generation have with the above result.

The standard of living with an Grand-parent generation / Children generation or living separately through evaluating the Parent & Children generation's residence surroundings will be estimated and the standard of importance of sharing house will be analyzed. And then the result will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of planning the 3-generation sharing house.

키워드: 노인주거, 3대 동거, 住意識

keywords: elderly housing, 3-generation sharing, housing consciousness

## I. 서 론

최근의 가족형태는 과거에 비해 가족구성 유형이 단순화, 개별화, 독립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평균 수명의 연장에 의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로 많은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부양과 가정적 부양의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3대 동거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서 대가족 구성 형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sup>1)</sup> 또한 급격한 노령화 경향에서 대가족 형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와 조부모세대와의 주생활에 대한 인식은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된다.<sup>2)</sup>

단일 주거공간에서 각

세대의 생활패턴은 독특한 특징을 갖으며, 자신들의 견해에서 조부모세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을 띄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에서는 조부모의 주

\*정회원,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정회원,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거환경에 대한 3세대 동거가구의 부모·손자녀세대가 갖는 주의식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택 내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중요시 되는 침실과, 공동이용 공간이면서도 본능적인 행위를 위한 공간인 욕실을 주 대상으로 하여 각 실의 물리적 조건, 그리고 각 실에서 조부모세대가 생활하는데 있어 적정도와 더불어 현 주택에서의 3세대 동거 적정여부 및 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조부모의 측면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가사노동 및 손 자녀 양육에 대한 분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자녀로부터 이에 대응되는 상호교환이 없을 경우, 동거만족은 최저가 되고 별거를 원하게 된다.(이인수, 1998)

이는 반대로 타 가족의 부양의식에 있어서도,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의식만 있을 뿐 다른 상호 교환되는 요소가 없다면 자녀나 손자녀측에서도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부모와의 동거가구에 있어, 조부모의 주거환경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부모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개인적 공간과 공간 내에서의 영역성 및 심리적 안정감의 확보, 취미활동공간 등에 대한 고려와, 가족, 친지, 이웃 등과의 교류와 여가활동이 용이하도록 하는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허병이, 1997) 이를 위해서는 조부모의 가부장적 지위와 권위가 점차로 상실되어 가는 현재의 가족관계에서는 자녀와 손 자녀와의 관계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 II.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의 속성

### 1. 조사개요

조사대상은 전주시와 익산시의 초·중·고등학생과 그들의 부모로 하고,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현재 3대가 동거하고 있는 가구의 부모와 학생에게 설문지를 동시에 배포하였는데, 총 447부를 배포하여 학생은 370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이 82.8%, 학부모는 27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이 62.2%를 나타내었다.

조사기간은 1998년 10월29일에서 11월13일 까지 이다.

### 2. 조사대상 가구의 조부모 세대의 속성

조부모의 결혼율은 조부의 결혼이 67.3%, 조모의 결혼은 7.8%이며, 각 연령층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건강상태는 80.6%가 보통 이상으로, 92.4%가 조력자 없이 거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응답자의 속성

#### 1) 부모세대의 속성

조사대상의 연령층은 30세 이상 39세 이하가 29.6%, 40세 이상 49세 이하가 59.8%로서 30~40대가 89.4%에 이른다. 월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73.7%로서 중류계층이 주를 이룬다. 또한 직업은 주부, 자영업, 공무원 순으로 나타났다.

#### 2) 손자녀세대의 속성

초등학생 18.3%, 중등학생 47.3%, 고등학생 34.3%로 나타났다. 형제수는 2명이 48.6%, 3명이 28.4%이며 4명 이상인 경우 9.8%이며,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인 경우는 4.9%에 불과하다. 특히 응답자가 만이인 경우가 48.1%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 가구의 세대별 속성 f(%)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손자녀세대			
연령	59이하	7( 1.9)	성남	남	139(50.0)	남	200(54.1)
	60-64	46(12.4)	성남	여	137(49.3)	여	170(45.9)
	65-69	64(17.3)	연령	39이하	83(29.6)	초등 저	36( 9.7)
	70-74	65(17.3)		40-44	98(35.3)	초등 고	32( 8.6)
	75-79	62(16.8)		45-49	68(24.5)	중등	175(47.3)
80이상	58(15.7)	50-54		17( 6.1)	고등	127(34.3)	
건강상태	아주 건강	41(11.1)	월수입(만원)	100미만	64(23.0)	첫째	178(48.1)
	건강	120(32.4)		101-200	141(50.7)	본인	125(33.8)
	보통	127(34.3)		201-400	28(10.1)	순셋째	42(11.4)
	나쁨	65(17.6)		400이상	5( 1.8)	넷째 이상	21( 5.7)
	아주 나쁨	7( 1.9)					
자거*	가능	342(92.4)	직업	공무원	42(15.1)	1인	18( 4.9)
	불가	21( 5.7)		회사원	39(14.0)	형 2인	180(48.6)
가분*	분담	194(53.2)	업	자영업	68(24.5)	제 3인	105(28.4)
	않음	170(45.9)		자유업	29(10.4)	수 4인	26( 7.0)
* 중복응답으로 처리되었음				주부	75(27.0)	5인	5( 1.4)
				농업	10( 3.6)	6인	5( 1.4)
조부 결손	249(67.3)	부 결손	14( 3.8)	무응답은 missing data 처리하여 빈도차이 있음			
조모 결손	29( 7.8)	모 결손	9( 2.4)				

### III. 주거 현황

#### 1. 주택 유형 및 거주기간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6.2%로 최근에 주거환경이 변화된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거주기간은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단독주택의 경우가 공동주택에 비해 비교적 길게 나타나 단독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가 35.5%에 이르고 있다(표 2).

표 2. 주거유형별 거주기간 f(%)

	1년미만	1년 - 5년미만	5년 - 10년미만	10년 이상	계
단독주택	5( 3.6)	58(42.0)	26(18.8)	49(35.5)	138(56.8)
집합고층	3( 7.1)	20(47.6)	13(31.0)	6(14.3)	42(17.3)
집합저층	7(11.1)	37(58.7)	16(25.4)	3( 4.8)	63(25.9)
계	15( 6.2)	115(47.3)	55(22.6)	58(23.9)	243(100.)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이 56.8%, 집합고층주택이 17.3%, 집합저층 주택이 25.9%로서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거주가구가 많고, 집합주택 중에서는 고층의 경우가 저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족유형별 침실 및 욕실수

##### 1) 가족유형의 분류

가구별 특성 파악을 위한 기준이 되는 가족의 유형은, 각 세대별 구성형태를 근거로 하여 분류하였다.

표 3. 가족유형 분류

가족분류 I (배우자 중심)	가족분류 II (손자녀중심)
GA-PA 모두 배우자 있음	S2 동성 2인 이하
GL-PA 조부모세대 배우자 결손	S3 동성 3인 이상
GA-PL 부모세대 배우자 결손	D4 이성 4명 이하 (s2d2 포함)
GL-PL 조부모·부모세대 모두 배우자결손	D5 이성 4명 이상 (s1d3,s3d1 포함)
G-C 조부모 세대와 동거	S3* 동성 3인 이하
	S4* 동성 4인 이상

\*부모세대 결손  
S:동성자녀, D:이성자녀  
s-아들, d-딸

첫 번째 유형(이하 가족분류 I)은 기혼인 조부모와 부모의 배우자 결손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sup>3)</sup> 두 번째 유형은 손자녀세대의 성별 구성에 따른 자녀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하

가족분류Ⅱ)이다.

2) 침실 및 욕실수

주택 내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공간으로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침실과 욕실을 중심으로 실수를 조사하였다.

① 침실수

가족분류Ⅰ에서의 요구 침실 수는 각 세대별 최소의 취침분리를 기준으로 최소한 3실이 요구되는데, 최정신(1991)<sup>9)</sup>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층의 경우, 자녀가 학령기 이후가 되면 노인실과 자녀실과의 분리요구가 현저히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족유형별 사용 침실수 f(%)

가족유형	2실	3실	4실	5실이상	계	
가족분류Ⅰ	GA-PA	5( 6.7)	36(48.0)	23(30.7)	11(14.7)	75(22.9)
	GL-PA	20( 8.8)	135(59.7)	56(28.4)	15( 6.6)	226(68.6)
	GA-PL	2(40.0)	3(60.0)			5( 1.5)
	GL-PL	2(11.8)	8(47.1)	6(35.3)	1( 5.9)	17( 5.2)
	G-C		2(40.0)	1(20.0)	2(40.0)	5( 1.5)
계	29( 8.8)	184(56.1)	86(26.2)	29( 8.8)	328(100.)	
가족분류Ⅱ	S2	10(11.4)	56(63.6)	19(21.6)	3( 3.3)	88(26.8)
	S3		16(66.7)	5(20.8)	3(12.5)	24( 7.3)
	D4-1	17( 9.3)	94(51.4)	53(29.0)	19(10.4)	183(55.8)
	D4-2	2( 7.1)	16(57.1)	8(28.6)	2( 7.1)	28( 8.5)
	S3*		1(50.0)		1(50.0)	2( 0.6)
	S4*		1(33.3)	1(33.3)	1(33.3)	3( 0.9)
	계	29( 8.8)	184(56.1)	86(26.2)	29( 8.8)	328(100.)

각 유형에서 3실인 경우가 56.1%로, 각 세대별 최소한의 취침분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분류Ⅱ에서 세대의 각각 개별침실을 산정하고, 손자녀세대는 1실 최대 취침인원을 2인으로 하여, 최소 침실수를 산정하여 보았다.

즉, D5형인 경우에는 5실이, S2형은 3실이, S3형이나 D4형인 경우에는 4실이 최소 소요

침실수가 된다.

따라서 S2형은 3실이 63.6%이고, S3형과 D4형은 4실이 각 20.8%, 29.0%, D5형은 5실이 7.1%로, 이성의 자녀가 3인 이상이 된 경우, 최소 소요 침실의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욕실수

욕실은 공적 공간이면서 사적 공간으로 가장 개인적 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신경주(1989)의 조사에 의하면 동거주택에서 양 세대에 따로 필요한 공간 중 욕실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공간분리의 요구도 침실 다음으로 높다.

더욱이 부모세대의 여성에게는 침실보다는 욕실과 화장실 이용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조사 대상의 경우는 40.9%가 1실로 나타나 세대별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욕실수 f(%)

		소 계	계
1실	욕외 1실	19 ( 5.7)	137 (40.9)
	욕내 1실	118 (35.2)	
2실	욕외 2실	2 ( 0.6)	162 (48.4)
	욕내외 각 1실	77 (23.0)	
	욕내 2실	83 (24.8)	
욕내외 총 3실 이상			36 (10.7)
계			335 (100.)

Ⅳ. 현 주택의 적정성 여부

1. 부모·손자녀세대가 본 각 실 불편여부

현 주택의 각 실 중, 조부모세대에게 가장 불편한 실에 대해, 부모세대는 침실, 욕실, 부엌 순으로, 손자녀세대는 침실, 욕실, 거실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6).

표 6. 현 주택에서 가장 불편한 실 f(%)

	부모세대	손자녀세대
침실	109 (69.0)	132 (68.4)
욕실	27 (17.1)	34 (17.6)
거실	9 (5.7)	19 (9.8)
부엌	11 (7.0)	6 (3.1)
수납공간	2 (1.3)	2 (1.0)
계	158 (100.)	193 (100.)

양 세대 모두 침실과 욕실이 가장 불편할 것이라 예측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세대에서는 부엌이라 하였는데, 이는 부모세대 응답자 중 27.0%가 주부인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침실의 적정성 여부

실의 사용자가 한정되어진 침실은 다른 공간과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가장 사적인 공간이다.

조부모의 침실 크기에 따른 사용 실태는 큰방이나 안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48.2%로 나타났다.(표 7)

표 7. 조부모세대의 침실사용 유형 f(%)

		단독사용	손자녀와 자녀와	계	$X^2=20.31$ $df=6$ $p=.001$
침실 크기	큰방(안방)	72(21.1)	85(24.8) 8( 2.3)	165(48.2)	
	중간방	81(23.6)	56(16.4) 3( 0.9)	140(40.9)	
	작은방	27( 7.9)	7( 2.0)	34( 9.9)	
	거실	3( 0.9)		3( 0.9)	
계		183(53.5)	148(43.3) 11( 3.2)	342(100.)	

또한 조부모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43.3%이며, 큰방을 이용하는 조부모 중 51.5%가 타 세대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조부모세대의 침실공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의 침실 사용에 대해, 부모세대는 실온의 부적합, 가족과의 교류 곤란, 협소 때문에, 자녀세대는 소음, 실온의 부적합, 가족과의 교류 곤란 때문에 불편할 것이라 하였다.

실온의 부적합과 가족과의 교류 곤란이 공통의 불편요인으로, 침실의 물리적 요인보다는 환경·설비적 요인에 대해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표 8).

표 8. 부모세대가 본 조부모세대의 침실사용상 불편요인 f(%)

		부모세대	손자녀세대
물리적 요인	협소	37 (17.6)	16( 7.3)
	침구 불편	19 ( 9.0)	
	침실의 공동사용	4 ( 1.9)	
	소계	45 (21.4)	16( 7.3)
환경 / 설비적 요인	환기 부족	15 ( 7.1)	22 (10.0)
	실온의 부적합	54 (25.7)	45 (20.5)
	일조량 부족	11 ( 5.2)	17 ( 7.8)
	소음	27 (12.9)	71 (32.4)
	가족과의 교류곤란	43 (20.5)	39 (17.8)
소계		165 (78.6)	194 (88.6)
기타			9 ( 4.1)
계		210 (100.)	219 (100.)

조부모의 침실에 대해 손자녀세대의 적정도 평점은 3.11로 부모세대의 2.66에 비해 높은 적정도를 나타냈다. 부모세대의 경우에는 침실 크기, 조부모의 건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9).

침실수가 많을수록, 침실의 크기가 클수록 적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손자녀와 공동사용일 경우, 조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조모가 결혼된 경우에 적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부모의 연령과는 일정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아, 단순한 연령보다는 건강상태의 영향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세대의 경우에는 조모의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침실수가 많을수록, 침실의 크기가 클수록, 적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손자녀와 공동사용일 경우, 조모가 결혼된 경우, 조부모 세대의 연령이 낮을수록 적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9. 조부모세대가 이용하는 침실 적정도

		부모세대			손자녀세대			
		M	SD	D	M	SD	D	
계		2.66	0.83		3.11	0.88		
침실의	침실수	2실	2.33	0.97	3.02	0.87		
		3실	2.55	0.86	3.07	0.89		
		4실	2.73	0.83	3.21	0.70		
		5실 이상	3.21	0.72	3.28	0.73		
		F	5.31**			1.67		
물리적	조부모 침실크기	가장 큰방	2.82	0.79	a	3.27	0.80	
		2번째 큰방	2.50	0.90	ab	2.97	0.82	
		가장 작은방	2.17	0.87	bc	2.97	0.81	
		거실	3.20	0.84	c	3.33	0.82	
		F	7.51***			4.00**		
요인	조부모 침실공동사용 유형	단독사용	2.73	0.87	3.27	0.82		
		손 자녀와	2.51	0.84	3.09	0.85		
		자녀와	2.70	0.95	3.13	0.90		
		F	2.08			0.30		
		조부모세대의 사회/인구학적	조부 연령	64세 이하	2.29	1.11	2.86	1.35
65 - 69세	2.60			1.07	2.94	0.87		
70 - 74세	2.82			0.75	3.12	0.81		
75 - 79세	2.69			1.03	3.50	0.852		
80세 이상	2.89			0.60	3.18	0.60		
F	0.51			1.12				
조모 연령	59세 이하		2.57	0.79	2.57	1.27	a	
	60 - 64세		2.79	0.74	3.12	0.75	a	
	65 - 69세		2.68	0.90	3.22	0.81	a	
	70 - 74세		2.69	0.83	3.36	0.70	a	
	75 - 79세	2.83	0.91	3.28	0.80	a		
F	1.42			2.33*				
조부모 건강상태	아주 건강	2.93	0.78	a	3.45	0.90		
	건강	2.68	0.93	ab	3.09	0.74		
	보통	2.53	0.74	ab	2.98	0.86		
	나쁘다	2.67	0.99	ab	3.19	0.82		
	아주 나쁘다	2.33	1.03	b	3.00	1.15		
F	1.43			2.686*				
요인	조부모 배우자 결손여부	결손 없음	2.80	0.89	3.08	0.86		
		조모 결손	2.55	0.96	2.96	0.99		
		조부 결손	2.61	0.86	3.13	0.80		
		F	1.26			0.59		

\*\*\* p < .001, \*\* p < .01 \* p < .05  
D : Duncan Multiple Range Test

조부모의 침실 적정도에 대한 주요 평가요인( $\beta$ )을 산출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부모세대의 경우, 조부모세대의 침실 크기( $\beta=0.42$ )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인이며, 침실수( $\beta=-0.36$ ), 조모의 연령( $\beta=-0.28$ ) 순으로 나

타났다. 손자녀세대의 경우, 조모의 연령( $\beta=-0.32$ )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인이며, 조부모의 건강( $\beta=0.30$ ), 침실수( $\beta=-0.28$ )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의 결손이 있을 경우, 조모의 침실사용에 있어 손자녀와의 공동 사용율이 높기 때문에 조부모의 연령과 침실수가 조부모의 침실 적정도에 있어 공통적인 주요 평가요인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욕실의 적정성 여부

욕실은 동일시간에 공동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적공간으로서 개인의 이용시간과 빈도에 따른 독립성이 요구된다.

표 10. 조부모세대가 이용하는 침실적정도의 다중회귀분석

변인		b	SE	$\beta$	t	
부모세대	침실수	-0.35	0.25	-0.32	-1.41	
	조부모세대의 침실 크기	0.44	0.43	0.23	1.01	
	침실의 공동사용 유형	0.08	0.31	0.05	0.26	
	조부 연령	0.01	0.21	0.02	0.05	
	조모 연령	-0.23	0.26	-0.26	-0.87	
	조부모 배우자 결손	0.09	0.06	0.08	1.37	
	조부모 건강	-0.07	0.18	-0.08	-0.42	
	상수	3.69	1.84		2.00	
	F=1.37 R <sup>2</sup> =0.27 Adj. R <sup>2</sup> =0.07					
	손자녀세대	침실수	-0.24	0.19	-0.21	-1.29
조부모세대의 침실 크기		0.14	0.35	0.07	0.40	
침실의 공동사용 유형		0.20	0.29	0.11	0.38	
조부 연령		-0.04	0.19	-0.05	-0.23	
조모 연령		-0.20	0.20	-0.24	-0.99	
조부모 배우자 결손		-0.31	0.29	-0.16	-1.07	
조부모 건강		0.27	0.15	0.28	1.82	
상수		2.70	1.29		2.10*	
F=1.80 R <sup>2</sup> =0.27 Adj. R <sup>2</sup> =0.19						

b:비표준화 계수 SE:표준오차  $\beta$ :표준화 계수  
\*\*\* p < .001, \*\* p < .01 \* p < .05

조부모의 욕실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은, 부모세대에서는 미끄럽다, 춥다, 야간 이용시 불편 순이고, 손자녀세대에서는 미끄럽다, 야간 이용시 불편, 협소 순으로 나타났다. 미끄럽다와 야간 이용시 불편이 공통적인 불편요인으로, 조부모의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이용

상의 문제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표 11. 부모세대가 본 조부모의 욕실사용상 불편요인 f (%)

		부모세대	손자녀세대
물리적 요인	협소 실외 욕실이라서 거리가 멀다	32 (15.7) 1 ( 0.5)	31 (12.4) 2 ( 7.4)
	야간 이용시 불편	41 (20.1)	41 (16.4)
	소 계	74 (36.3)	74 (29.6)
	환기 부족	5 ( 2.5)	20 ( 8.0)
환경/ 설비적 요인	출다 방음이 되지 않아서 어둡다	46 (22.5) 1 ( 0.5)	21 (10.5) 2 ( 0.9)
	미끄럽다	14 ( 6.9)	19 ( 7.6)
	재래식이라서	55 (27.0)	95 (38.0)
	수세식이라서	9 ( 4.4)	3 (11.1)
	소 계	130 (63.7)	160 (64.0)
기 타			11 ( 4.4)
계		204 (100.)	250 (100.)

또한 욕실의 물리적 조건보다는 환경·설비적인 조건으로 인해 상위세대의 이용상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욕실사용에 대해 손자녀세대의 적정도 평점은 2.79로 부모세대의 2.49에 비해 높은 적정도를 나타내고 있다(표 12).

부모·손자녀세대의 측면에서 본 조부모세대의 욕실 적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부모세대의 경우에는 욕실수에서, 손자녀세대에서는 조부모의 건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세대의 경우, 욕실수가 많을수록, 공동기능을 할수록, 수세식과 재래식이 모두 있을수록 적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의 건강이 나쁠수록, 조부보다 조모가 결손된 경우에 적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손자녀세대에서는, 욕실수가 많을수록, 공동기능을 할수록, 수세식인 경우에 적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의 건강이 나쁠수록,

표 12. 조부모세대가 이용하는 욕실 적정도

		부모세대			손자녀세대			
		M	SD	D	M	SD	D	
계		2.49	0.82		2.79	0.87		
욕실의 물리적 요인	욕실수	1실	2.35	0.75	a	2.61	0.93	
		2실	2.54	0.81	ab	2.92	0.86	
		3실	2.66	0.91	b	2.97	0.67	
		F	2.39		5.78			
물리적 요인	목욕과 용변의 겸용여부	예	2.54	0.78		2.88	0.84	
		아니오	2.12	0.85		2.46	0.91	
		F	5.83		14.09			
물리적 요인	변기 유형	수세식	2.50	0.75		2.89	0.86	
		재래식	2.07	0.94		2.29	0.91	
		두 가지다	2.66	0.91		2.82	0.75	
		F	4.99		10.53			
조부모 세대의 사회/ 인구학 적 요인	조부 연령	64세 이하	2.29	0.76		3.14	0.90	
		65 - 69세	2.50	0.97		2.79	0.98	
		70 - 74세	2.55	0.52		2.81	0.91	
		75 - 79세	2.23	1.01		2.80	0.63	
		80세 이상	2.50	0.76		2.92	0.79	
		F	0.31		0.32			
	조모 연령	59세 이하	2.33	0.52		2.86	0.90	
60 - 64세		2.48	0.78		2.63	0.88		
65 - 69세		2.36	0.99		3.02	0.82		
70 - 74세		2.47	0.90		2.82	0.75		
75 - 79세		2.44	0.84		2.88	0.88		
80세 이상		2.44	0.56		2.88	0.66		
		F	0.09		1.00			
조부모의 건강상태 요인	조부모의 건강상태	아주 건강	2.71	0.85		3.27	0.68	a
		건강	2.50	0.81		2.94	0.75	ab
		보통	2.45	0.83		2.67	0.87	b
		나쁘다	2.46	0.72		2.50	0.91	b
		아주 나쁘다	2.17	0.75		1.86	1.57	
	F	0.87		8.93				
조부모의 배우자 결손여부	조부모의 배우자 결손여부	결손 없음	2.63	0.83		2.76	0.98	
		조모결손	2.46	0.85		2.67	0.83	
		조부결손	2.43	0.80		2.82	0.85	
		F	1.56		0.45			

\*\*\* p < .001 \*\* p < .01 \* p < .05  
D : Duncan Multiple Range Test

조부보다 조모가 결손된 경우에 적정도가 낮게 나타나, 부모세대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조부모세대의 욕실 적정도에 대해서는 두 세대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공동 사용 공간에 대해서는 세대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부모세대의 욕실의 적정도에 대한 주요 평가 요인(β)을 산출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3).

부모세대의 경우, 욕실수( $\beta=-0.21$ )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인이며, 욕실의 기능( $\beta=0.12$ ), 조부모의 건강( $\beta=0.10$ ) 순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세대의 경우, 조부모의 건강( $\beta=0.29$ )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인이며, 욕실의 기능( $\beta=0.22$ ), 욕실수( $\beta=-0.16$ )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조부모세대가 이용하는 욕실 적정도의 다중회귀분석

	변인	b	SE	$\beta$	t
부 모 세 대	욕실수	-0.30	0.25	-0.21	-1.19
	욕실 변기 종류	0.10	0.23	0.02	0.10
	목욕과 용변 겸용여부	0.14	0.43	0.12	0.66
	조부 연령	0.24	0.20	0.06	0.33
손 자 녀 세 대	조모 연령	-0.26	0.23	-0.03	-0.17
	조부모세대 배우자 결손	0.09	0.06	0.09	1.51
	조부모세대 건강상태	0.10	0.14	0.10	0.55
	상수	2.47	0.14		17.40***
F=0.53 R <sup>2</sup> =0.11 Adj. R <sup>2</sup> =0.10					
부 모 세 대	욕실수	-0.20	0.19	-0.16	-1.09
	욕실 변기 종류	0.28	0.17	0.12	0.83
	목욕과 용변 겸용여부	0.38	0.30	0.22	1.50
	조부 연령	0.13	0.16	-0.12	-0.84
손 자 녀 세 대	조모 연령	-0.28	0.17	-0.15	-1.12
	조부모세대 배우자 결손	-0.09	0.26	0.07	0.48
	조부모세대 건강상태	0.22	0.19	0.29	2.04*
	상수	1.55	0.30		5.17
F=1.57 R <sup>2</sup> =0.22 Adj. R <sup>2</sup> =0.08					
b:비표준화 계수 SE:표준오차 $\beta$ :표준화 계수 *** p < .001, ** p < .01 * p < .05					

따라서 욕실수와 기능, 조부모의 건강이 조부모세대의 욕실 적정도에 있어 공통적인 주요 평가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부모의 건강은,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관계된 주요인으로서 욕실과 같이 낙상의 위험율이 많은 공간에서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현 주택의 적정성 여부

현 주택의 적정여부에 따른 이주의사를 보면 부모세대의 이주의사가 손자녀세대보다 높

은데, 특히 현 주택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주를 하고 싶다는 경우가 40.5%로 자녀세대의 27.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14).

표 14. 주택의 적정여부와 이주요구의 교차분석 f(%)

		이사하겠다	이사 않겠다	계	
부 모 세 대	적당	17 (40.5)	25 (59.5)	42 (34.1)	X <sup>2</sup> =16.925 df=1 p=.000
	부적당	63 (77.8)	18 (22.2)	81 (65.9)	
	계	80 (65.0)	43 (35.0)	123 (100.)	
손 자 녀 세 대	적당	26 (27.7)	68 (72.3)	94 (51.9)	X <sup>2</sup> =44.052 df=1 p=.000
	부적당	67 (77.0)	20 (22.7)	87 (48.1)	
	계	93 (51.4)	88 (48.6)	181 (100.)	

#### 1) 주택의 부적당 요인 측면에서

현 주택에 대한 부적당 요인으로, 부모세대는 전체면적 협소, 침실 협소·부족, 시설불량·노후 순이고, 손자녀세대는 전체면적 협소, 침실 부족·협소, 위치·주변환경 순으로 나타났고, 욕실에 대해서는 각 3.9%, 2.0%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표 15).

표 15. 현 주택의 부적당 요인 f(%)

		부모세대	손자녀세대	계
주 거 공 간 요 인	주택유형	4 ( 5.2)	3 ( 3.9)	7 ( 4.0)
	전체면적 협소	41 (53.2)	30 (30.3)	71 (40.3)
	침실 협소·부족	13 (16.9)	19 (19.2)	32 (18.2)
	욕실 협소·부족	3 ( 3.9)	2 ( 2.0)	5 ( 2.8)
	부엌	1 ( 1.3)	1 ( 1.0)	2 ( 1.1)
	동선·계단	3 ( 3.9)	6 ( 6.1)	9 ( 5.2)
소 계		65 (84.4)	61 (61.6)	126 (71.6)
환 경/ 설 비 요 인	정원 협소·없다	2 ( 2.6)	2 ( 2.0)	4 ( 2.3)
	시설노후·불량	8 (10.4)	10 (10.1)	18 (10.4)
	위치·주변환경	1 ( 1.3)	17 (17.2)	18 (10.4)
	소 계	11 (14.3)	29 (29.3)	40 (22.7)
기 타		1 ( 1.3)	9 ( 9.1)	10 ( 5.7)
계		77 (100.)	99 (100.)	176 (100.)

이처럼 양 세대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침실의 협소나 부족이 현 주택에 있어 가장 부적당 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현 주택에 대해 손자녀세대의 적정도 평점은 3.75로 부모세대의 3.66에 비해 높은 적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측면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간 분석 결과, 조부모의 연령과 건강별 적정도에서 특별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으며, 조부보다는 조모가 결손된 경우에 적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조부모세대의 가사분담 여부에 따른 적정도는 부모세대와 손자녀세대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 16).

표 16. 사회/인구학적 변인간 주택 적정도

		부모세대			손자녀세대		
		M	SD	D	M	SD	D
	계	3.66	0.47		3.75	0.43	
조부 연령	64세 이하	3.43	0.53		4.00	0.00	
	65 - 69세	3.44	0.53		3.68	0.48	
	70 - 74세	3.55	0.52		3.67	0.49	
	75 - 79세	3.67	0.49		3.88	0.33	
	80세 이상	3.67	0.50		3.83	0.39	
	F	0.46			1.37		
조모 연령	59세 이하	3.71	0.49		3.86	0.38	
	60 - 64세	3.60	0.50		3.76	0.43	
	65 - 69세	3.60	0.50		3.85	0.36	
	70 - 74세	3.56	0.48		3.78	0.42	
	75 - 79세	3.67	0.48		3.80	0.40	
	80세 이상	3.84	0.37		3.72	0.45	
	F	1.06			0.52		
조부모의 건강상태	아주 건강	3.69	0.47		3.82	0.38	
	건강	3.62	0.49		3.77	0.42	
	보통	3.64	0.48		3.70	0.46	
	나쁘다	3.76	0.43		3.70	0.46	
	아주 나쁘다	3.50	0.55		3.79	0.49	
	F	0.94			0.90		
조부모 배우자 결손여부	결손 없음	3.54	0.50		3.68	0.47	
	조모 결손	3.62	0.50		3.76	0.44	
	조부 결손	3.70	0.46		3.77	0.42	
	F	2.58			1.44		
조부모의 가사분담 여부	예	3.64	0.48		3.76	0.43	
	아니오	3.67	0.47		3.74	0.44	
	F	1.06			0.21		

D : Duncan Multiple Range Test

3) 물리적 변인 측면에서

물리적 변인간 분석 결과 부모세대의 경우에는 침실수, 조부모의 침실 크기, 조부모세대의 침실 적정도에서, 손자녀세대에서는 침실수, 조부모세대의 욕실 적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17).

표 17. 물리적 변인간 주택 적정도

		부모세대			손자녀세대		
		M	SD	D	M	SD	D
	계	3.66	0.47		3.75	0.43	
주택유형	단독주택	3.73	0.44		3.91	0.40	
	집합저층	3.59	0.50		3.57	0.50	
	집합고층	3.58	0.50		3.71	0.46	
	F	3.30-			6.79--		
침실수	2실	3.45	0.51	a	3.61	0.50	a
	3실	3.61	0.49	ab	3.68	0.47	a
	4실	3.70	0.46	b	3.88	0.32	b
	5실 이상	3.91	0.29		3.91	0.30	b
	F	4.19--			7.45--		
침실크기	가장 큰방	3.62	0.49	a	3.77	0.42	
	2번째 큰방	3.70	0.46	ab	3.73	0.45	
	가장 작은방	3.58	0.50	ab	3.68	0.47	
	거실	4.00	0.00	b	3.83	0.41	
	F	1.31			0.67		
조부모세대공용유형	단독사용	3.66	0.48		3.76	0.43	
	손자녀와 자녀와	3.65	0.48		3.74	0.44	
	용유형	3.70	0.48		3.64	0.50	
	F	0.06			0.53		
침실 적정도	아주 적정	3.84	0.37	a	3.92	0.27	
	적정	3.84	0.44	ab	3.71	0.45	
	보통	3.59	0.50	b	3.57	0.50	
	부적정	3.29	0.46		3.18	0.40	
	아주 부적정			3.67	0.58		
	F	10.75--			13.37--		
욕실수	1실	3.53	0.50		3.65	0.48	
	2실	3.71	0.45		3.91	0.38	
	3실	3.76	0.43		3.92	0.40	
	F	5.38--			6.79--		
욕실 용변의 겸용여부	예	3.69	0.46		3.75	0.43	
	아니오	3.50	0.50		3.75	0.43	
	F	3.84			0.00		
변기 유형	수세식	3.64	0.48		3.81	0.44	
	재래식	3.55	0.51		3.74	0.39	
	두 가지다	3.85	0.36		3.77	0.42	
	F	4.04-			0.61		
욕실 적정도	아주 적정	3.88	0.33		3.89	0.32	a
	적정	3.83	0.38		3.76	0.43	ab
	보통	3.57	0.50		3.70	0.46	ab
	부적정	3.25	0.44		3.50	0.51	b
	아주 부적정	3.00	0.00		3.00	0.00	
	F	13.95--			6.68--		

\*\*\* p < .001, \*\* p < .01 \* p < .05

D : Duncan Multiple Range Test

양 세대에서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침실수와 욕실수가 많을수록, 조부모세대의 침실과 욕실 적정도가 높을수록 현 주택 적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세대에서는 조부모가 가장 큰방 혹은 안방을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작은 방을

사용하는 경우, 수세식과 재래식 화장실을 모두 소유한 경우, 목욕과 용변의 기능을 모두 갖는 욕실을 소유한 경우에 높은 적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손자녀세대에서는 가장 큰방 혹은 안방을 사용하는 경우, 수세식 화장실인 경우에 높은 적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조부모 세대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 3대 동거만족에 대한 주택 적정도에서는 양 세대 모두 현 동거에 만족할수록 주택 적정도도 높게 나타났다(표 18).

표 18. 현 동거 만족도에 대한 주택 적정도

	부모세대			손자녀세대		
	M	SD	D	M	SD	D
아주 만족	3.91	0.53		3.85	0.00	a
만족	3.67	0.53		3.76	0.48	ab
보통	3.63	0.52		3.65	0.49	ab
불만족	3.50	0.49		3.50	0.33	ab
아주 불만족	3.00	0.50		4.00	0.39	b
F	2.07			3.53**		

\*\*\* p < .001, \*\* p < .01 \* p < .05

D : Duncan Multiple Range Test

현 주택의 적정도에 대한 주요 평가 요인( $\beta$ )을 산출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9).

부모세대의 경우, 침실적정도( $\beta=0.61$ )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인으로 나타났고, 욕실적정도( $\beta=0.44$ ), 침실수( $\beta=-0.39$ ), 주택유형( $\beta=0.30$ ) 순이다. 손자녀세대의 경우, 침실적정도( $\beta=0.58$ )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인으로 나타났고, 욕실적정도( $\beta=0.42$ ), 침실수( $\beta=-0.40$ ), 조부모의 연령( $\beta=-0.21$ ) 순이다.

양 세대에서 침실과 욕실 적정도와 침실수가 공통의 주요 평가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세대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표 19. 주택 적정도 다중회귀분석

세대	변인	b	SE	$\beta$	t	
부 모 세 대	주택유형	0.20	0.20	0.30	1.50	
	침실수	-0.08	0.18	-0.39	-2.05	
	조부모의 침실 크기	0.28	0.24	0.24	1.21	
	침실의 공동사용 유형	-0.18	0.21	-0.21	-1.05	
	침실적정도	0.02	0.25	0.61	3.72**	
	욕실수	-0.11	0.22	-0.12	-0.59	
	욕실 변기 종류	0.06	0.19	0.05	0.15	
	목욕과 용변 겸용여부	-0.91	0.39	-0.29	-1.50	
	욕실적정도	0.33	0.19	0.44	2.36*	
	조부연령	-0.32	0.12	-0.26	-1.32*	
손 자 녀 세 대	조모연령	-0.28	0.15	-0.08	-0.41	
	조부모 배우자 결혼	-0.08	0.03	-0.14	-2.27*	
	조부모 건강상태	-0.02	0.17	-0.04	-0.19	
	조부모가사분담여부	0.66	0.33	0.00	0.00	
	현 3대 동거만족도	0.08	0.14	0.09	0.46	
	상수	1.50	0.10		15.00***	
	F=2.38 R <sup>2</sup> =0.77 Adj. R <sup>2</sup> =0.45					
	주택유형	0.09	0.19	0.04	0.21	
	침실수	-0.17	0.09	-0.40	-2.58*	
	조부모의 침실 크기	0.06	0.19	0.17	1.02	
침실의 공동사용 유형	-0.19	0.18	-0.01	-0.03		
침실적정도	0.33	0.10	0.58	4.27***		
욕실수	0.27	0.13	0.01	0.03		
욕실 변기 종류	-0.13	0.12	-0.04	-0.22		
목욕과 용변 겸용여부	-0.09	0.20	-0.12	-0.71		
욕실적정도	0.21	0.11	0.42	2.78**		
조부연령	-0.11	0.09	-0.21	-0.13		
조모연령	-0.22	0.11	-0.21	-1.13		
조부모 배우자 결혼	0.21	0.15	0.03	0.17		
조부모 건강상태	0.09	0.07	0.15	0.90		
조부모가사분담여부	0.19	0.19	0.11	0.69		
현 3대 동거만족도	-0.13	0.09	-0.05	-0.29		
상수	1.29	0.08		17.30		
F=2.33 R <sup>2</sup> =0.61 Adj. R <sup>2</sup> =0.35*						

\*\*\* p < .001, \*\* p < .01 \* p < .05

## V. 결 론

이상과 같이, 3세대 동거주택에 있어 부모와 손자녀세대의 현 거주주택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조부모의 침실은 가장 큰 방 또는 안방에서 손 자녀와 공동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에 대해 부모세대보다 손자녀세대가 높은 적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예상되는 불편요인으로 환경·설비적인 요인의 비율이 높는데, 부모세대는 실온의 부적합, 가족과의 교류곤란을, 손자녀세대는 소음과 실온의 부적합을 주요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양 세대 모두 침실수가 많을수록, 크기가 클수록 현 주택에 대한 적정도가 높고, 손자녀와 공동 사용할 경우와 조부보다 조모가 결손된 경우 적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침실 적정도에 있어 주요 평가요인은, 부모세대에서는 조부모세대의 침실 크기, 침실수, 조모의 연령 등 침실의 물리적 조건이며, 손자녀세대에서는 조모의 연령, 조부모의 건강, 침실수 등 조부모세대의 조건으로 나타났다.

(2) 조부모세대의 욕실사용상 예상되는 불편요인으로 양 세대 모두 조부모의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자율적인 거동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욕실 적정도에서는 부모세대보다 손자녀세대에서 높은 적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양 세대 모두 욕실수가 많을수록, 공동기능을 할수록, 수세식인 경우에 높은 적정도를, 조부모의 건강이 나쁠수록, 조부보다 조모가 결손된 경우에 낮은 적정도를 보이고 있다.

조부모세대의 욕실의 적정도에 대한 주요 평가 요인으로, 부모세대에서는 욕실수, 욕실의 기능, 조부모의 건강으로, 손자녀세대에서는 조부모의 건강, 욕실의 기능, 욕실수로 나타나, 욕실의 물리적인 조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동사용 공간인 욕실에 대해서는 양 세대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 주택에서의 부적당 요인으로 양 세대 모두 침실의 부족과 협소를 들고 있다. 조부모가 안방 혹은 가장 큰방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세대가 갖는 조부모세대의 침실 적정도는 높으나, 주택 적정도에서는 낮게 나타나, 자신들의 침실과 관련되는 주택 적정도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양 세대 모두 조부보다 조모가 결손된 경우에 낮은 적정도를 보이고 있다.

양 세대 모두, 침실 적정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인이고, 욕실 적정도, 침실수가 공통의 주요 평가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각 적정도에 있어 공통으로 조부모세대의 건강과 연령은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변인이 되지 않는데, 이는 각 개별적인 특징에 따라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모의 결손일 경우의 각 적정도가 낮게 나타나, 조부만을 부양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각 적정도에서 부모세대보다 손자녀세대가 높은 수치를 보이거나, 이주에 대해서는 부모세대의 희망율이 낮게 나타나, 경제적인 여건 등 현실성을 고려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본 고에서는 조부모세대의 침실과 욕실에 대한 부모·손자녀세대의 주의식을 비교하여 보았다. 금후 조부모와 부모 및 손자녀간의 주의식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비교가 요구된다.

주

참 고 문 헌

- 1) 3대 동거비율은 1981년 69.1%(김태현), 1989년 48.3%(박인덕 외), 1998년 41.1%(정경희 외)로 점차로 감소추세에 있음
  1. 최성재,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주택 정책, 고령화사회의 노인 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경춘사, p.63. 1992.
  2.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8, 1998..
- 2)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8-13%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 하며, 이에 소요된 기간을 비교하면 미국은 75년, 프랑스는 115년, 일본은 25년 정도이었다.  
우리 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 2021년이 되면 13%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 3) 김정진, 삼세대 동거주호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p.58의 유형을 재분류함, 1994.
- 4) 신경주, 중년의 주요구 측면에서 본 삼대동거주택의 조건,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9. 10, P.79
- 5) 최정신, 3대 동거주택에 대한 주요구와 선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1.2, p.36
1. 신경주, 중년의 주요구 측면에서 본 삼대동거 주택의 조건,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9.10
2. 고성룡,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계획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3. 허병이 외, 도시지역 노인을 위한 주생활환경 계획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1.6
4. 이연숙 외, 삼대가족의 공간적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2.6
5. 최성재,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주택 정책, 고령화사회의 노인 주택정책 및 개발 방향 서정,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경춘사, 1992
6. 오찬옥 외, 주거욕구파악을 위한 하위상황 설정 기준, 한국노년학회논문집, 제 12권 2호, 1992
7. 오찬옥,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해 본 노인 주거 모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8. 김정진 외 3세대 동거주호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4.4
9. 이동숙 외, 노년층의 주거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주거학회, 1998.11
10. 김태일,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계획조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5.10